

'무등기' 주인 마운드에 달렸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는 전국에서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행 티켓을 차지한 24개팀이 참여한다. 권역별로 호남·제주권 6개팀, 영남권 5개팀, 서울·경기 8개팀, 인천·강원·충청권 5개팀이다.
오는 11일부터 8일동안 녹색 그라운드를 누빌 각 팀들의 전력을 상·하로 나눠 들여다봤다.

무등기 야구 전력분석

〈상〉 호남·제주·영남권

윤효섭과 노진혁, 윤도경으로 이어지는 '클린업트리오'는 타 팀을 압도할 정도로 파괴력을 자랑한다.
전북 야구 명문인 군산상고도 이번 대회 '다크호스'다.
연고구단인 KIA로부터 2008년 신인 1차 지명 받은 투수 전태현이 든든하다.
187cm, 85kg의 나무꾼 체격을 지닌 전태현은 우완 사이드암 투수로 직구 최고 구속 141km.

군산상고 '전태현' 돌풍 예고

평균 133~138km를 뿌리는 데 바깥쪽으로 흐르는 예리한 슬라이더가 '예술품'이다. 다만 대회 1차전에서 '강호' 광주제일고와의 대결이 예고된 게 변수다.
순천 효천고는 2m3cm의 장신인 1학년 좌완 장민익을 보유하고 있다. 공의 속도는 130km 중반에 불과하지만 큰 키에서 내리꽂는 구질이 까다롭다. 지역예선에서 6월타를 뿜낸 주장 공주현과 1루수 채은성, 5할타의 박효석 등의 방망이만 터져준다면 4강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제주관광고는 올 대통령배에서 고교야구 15년만에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투수 김수완의 어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최고 구속 145km 자랑하는 노승현과 김성현 등 나머지 투수들도

안정적이다.
▲영남권(5팀)
올 청룡기 대회에서 4강에 오른 부산공고의 약진에 눈에 띈다. 키보와 슬라이더가 예리한 좌완 에이스 박용운(3학년)을 앞세워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박용운은 지난해 타자에서 투수로 전환한 에이스로 올 청룡기에서 3경기에 출전, 모두 397개의 공을 뿌리며 방어율 0.33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산공고 박용운 원맨쇼 기대

지난해 무등기 준우승팀인 구미전자공고도 언더핸드 효효의와 좌완 박재희, 우완 서정민 등을 내세워 최소 4강 진입을 자신하고 있다. 김동빈, 강봉규, 장웅, 이휘웅 등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폭발력도 돋보인다.
한국 프로야구를 빛낸 장효조와 김시진, 이만수, 양준혁 등을 배출한 야구 명문 대구상고도 우완 김민석과 이동훈, 이상훈 등이 배치된 마운드가 강점이다. 하지만 타선의 집중력은 다소 떨어진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전국대회 우승을 일궈낸 정도로 영남 야구의 명문인 부경고(구 경남상고)는 2000년대 들어 침체에 접어들어왔다. 올해 인문계인 부경고로 탈바꿈 한 뒤 첫 출전하는 무등기 대회에서 8강 진입을 노리고 있다.
팀원 9명으로 구성된 김해고는 최약체 팀으로 분류되고 있다. 팀 에이스로는 3학년 하해웅이 있다. 대회 8강 진출이 목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고 우승후보 0순위

▲호남·제주권(6팀)
올해 대통령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야구 명문' 광주제일고는 우승 후보 '0' 순위다.
145km의 빠른 볼로 대통령배 우승을 이끌어낸 장찬현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는 전국 최강으로 꼽힌다.
타선도 1번부터 9번까지 실력차가 없을 정도로 고른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고, 팀의 3번 타자를 맡고 있는 서건창의 방망이는 스카우트들이 눈독을 들일 정도로 위력적이다.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인 진흥고도 '특급 마운드' 정영일(LA 에인절스)이 빠져지만, 임요한-나성범-조영복 등 3학년으로 구성된 마운드와 안정적이다. 타선에선 이성욱과 문준용, 박상현 등이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무등기를 3차례나 우승한 동성고는 143km대의 직구와 변화구의 제구력이 일품인 윤병준을 앞세워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7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정선민이 중국 장한란의 수비를 피해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정선민·변연하 중격과 선봉장 亞 선수권 준결 진출

한국 여자농구가 중국을 꺾고 전승으로 제22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결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5차전 중국과 1부리그 풀리그 예선 5차전에서 정선민(27점·10리바운드)과 변연하(22점)의 활약을 앞세워 83-80으로 힘겹게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3일 태국과 첫 경기 완승을 시작으로 5전 전승을 거둬 1부리그 1위를 확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일본과 중국, 대만을 풀리그 예선에서 모두 꺾어 1999년 우승 이후 8년 만에 정상 탈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베이징올림픽 티켓을 거머쥘 희망을 더욱 밝게 했다.
한국은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1부리그 4위와 결승행 진출 티켓을 놓고 다름 예정이다.
1.5군 급을 내보낸 중국을 상대로 한국 '베테라'들의 노련미가 빛난 한 판이었다.
정선민과 변연하, 박정은(14점), 진미정(6점), 김계영(4점)을 선발로 내세운 한국은 1쿼터에서만 12점을 몰아 넣은 정선민의 맹활약 승리를 안았다.
/연환뉴스



승엽, 올스타 득표 ↑

日 프로야구 1루수부문 2위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일본프로야구 올스타 투표 중간 집계에서 센트럴리그 1루수 부문 2위로 뛰어 올랐다.
일본야구기구(NPB) 홈페이지가 7일 발표한 팬 투표 2차 집계 결과 이승엽은 8만1천191표를 획득, 1위 타이론 우즈(주니치·8만1천349표)에게 150표 가량 뒤진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4일 1차 발표 때 3위였던 이승엽은 구리하라 겐타(호시마·7만5천362표)를 밀어내고 우즈와 양강체제를 구축했다.
성적에서는 우즈가 이승엽을 한참 앞섰지만 이승엽은 대신 전국구 구단

요미우리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또 요미우리가 주니치에 앞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지목된다.
우즈는 6일까지 센트럴리그 홈런(20개)과 타점(52개) 부문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질주 중이다. 이승엽은 홈런 12개와 타점 33개로 각각 리그 6위, 11위에 올라 있다.
우즈가 인터리그 최강 7경기에서 타율 0.217(23타수5안타)에 홈런 1개, 타점 2개로 부진한 편이어서 이승엽이 팬 투표 마감일까지 우즈와 격차를 좁힌다면 역대 한국프로야구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팬 투표로 뽑힌 올스타의 영광을 안을 수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병규, 2군행 충격 수비·주루 문제 드러내

일본프로야구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수비와 주루 플레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 6일 전격적으로 2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니치 계열 스포츠전문지인 '주니치 스포츠'는 7일 인터넷판에서 이병규의 2군행 소식을 자세히 전한 뒤 타격 보다 수비와 주루에서 빈치의 기대에 못 미쳐 2군으로 내려갔다고 평했다. 오치아이 히로미쓰 감독은 자세한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이 신문은 2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전에서 보여준 작은 수비 플레이 하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병현, 4승 도전 '한번 더'

내일 탬파베이전 출격

'특급 잠수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9일 오전 8시5분(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와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플로리다 구단은 7일 김병현을 탬파베이와 3연전 첫 경기 선발로 예고하고 1승, 평균자책점 1.13을 올린 J.P. 하월과 선발 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현의 시즌 성적은 3승2패, 평균자책점 4.40이다.
김병현은 지난달 14일 콜로라도에서 플로리다로 트레이드된 뒤 첫 선발 등판인 19일 탬파베이전에서 5.

1이닝 동안 3점(2자책점)을 쫓으나 타선이 일찍 폭발한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이적 첫 승리를 신고했다.
이적 후 4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78의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김병현은 탬파베이를 제물로 홈에서 첫 승리를 챙기겠다는 각오다.
그는 5월24일 홈에서 열린 필라델피아전에서 5.1이닝 동안 4점을 주고 승패 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다.
주의해야 할 타자는 지난번 대결에서 홈런을 허용한 타이 위건턴과 카를로스 페냐다. 최근 선발 4경기에서 5월29일 시카고 컵스전만 빼놓고 홈런을 맞은 김병현은 홈런만 피한다면 승리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8일(금)
▲메이저리그(필라델피아·뉴욕 M)(08:00·Xports)
▲NBA 파이널 1차전(10:00·MBC ESPN)
▲청소년(U-15) 축구국가대표 평가전(대한민국-북한)(13:50·MBC)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라쿠텐)(17:50·MBC ESPN)
▲프로야구(두산-삼성)(18:00·MBC ESPN), (롯데-현대)(18:00·KBSN Sports)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단식 준결승(22:00·MBC ESPN)
▲월드그리드 배구 1차전(브라질-대한민국)(22:00·KBSN Sports)
9일(토)
▲PGA투어 스탠포드 St. 주드 챔피언십 2R(04:30·SBS스포츠)

공인중개사

7월 2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적근로자 수강료환급과정이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모집인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각 60명씩 선착순 마감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6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 행정고시학원 ☎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2년제이상 졸업자
◎남,녀(30세미만)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